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5 중국 난주 병령사 석굴

선정과 정토신앙이 만나다

중국의 서북지역은 황량한 대지다. 둔황에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길도 그렇다. 마른 황무지를 스치는 기차를 타고 가노라면 이 길을 걸었던 이들의 심정이 어떨지를 생각해 본다. 황량한 대지 위를 흐르는 황하의 물결을 만나면 절로 탄성이 일어난다. 척박한 대지의 사람들에게 그 물의 소중함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다.

둔황을 지나 난주로 넘어온 길에는 병령사(炳靈寺)라는 석굴이 있다. 병령사 석굴은 중국 5호 16국(五胡十六國) 시대에 성립한 나라 중 하나인 서진(西秦:385~431) 왕조 시기 만들어진 곳이다.

현재 난주(蘭州)에서 가까운 영정(永靖)이란 지역에 위치한 병령사는 처음부터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 <수경주(水經注)>에 의하면 병령사는 북위

진(東晉)의 고승인 성견(聖堅)을 초빙해 역경불사를 일으켜 당시 불사에 종사한 승려 숫자만 10여 명이었으며 번역된 경전이 14부 21권이였다.

병령사 석굴은 당시 역경불사를 비롯한 불교 전래의 핵심이었다. 지면으로부터 40m 높이에 자리잡은 석굴 안에는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등이 있다. 이는 강량야사(量那耶舍)가 번역한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무량수경>에서는 아미타불(무량수불)의 화불(化佛)로 관음과 세지 두 보살이 등장하는데 병령사 석굴의 기록에는 두 보살상이 모두 등장해 <관무량수경>의 유통과정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 병령사의 169년 굴에서는 '무량수불(無量壽佛)'이 있는데 이는 중국내륙에서 서방극락정토에 대한 신앙이 최초로 등장한 것을 의미한다.

5호 16국 시대나 이후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미륵왕생신앙이 유행했다. 뒤에 소개될 용문 석굴 불상처럼 이 시기에는 미륵왕생신앙이 크게 유행해 율동하게 많은 수의 미륵상이 조성됐다.

그런데 병령사에서 서방정토로 가고자 하는 신앙이 유행한 점이 발견되는 것은 특이하다. 병령사가 위치한 하서회랑은 중국과 서역을 잇는 통로로 수많은 승려들이 머문 곳이었으며 그로 인해 선 수행이 발달했다. 즉 서방극락정토 신앙이 선 수행의 전래와 연관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승전> 중 '현고전(玄高傳)'에는 "갈복씨가 이 지역에서 활동할 당시 서쪽으로는 양주지방(동황지방)에 접해 있었다. 외국선사 담무비(曇無畏)가 이곳에 와서 선을 가르쳤다"는 기술이 남아있다.

담무비는 선정의 대가였다. 이러한 담무비와 같은 선정의 대가와 서방정토에 대한 관상법이 연관을 맺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다. 선정과 결합된 새로운 불교적 수행과 신앙이 이 병령사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불교 초기에 서방정토를 갈구하던 이들은 서방정토로 가는 방법을 극락정토를 마음의 대상으로 관찰하는 일종의 선정의 방법으로 찾았다. 이러한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중국과 실크로드 사이에서 초기에 수용되었던 선 수행의 기법이 이 지역에 상당히 융성하였음을 보여준다.

문무왕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병령사 석굴(炳靈寺石窟) 169년 굴은 중국 내에서 최초의 기록된 연대(건흥 원년 420년)가 등장하는 석굴이다. 안에는 무량수불, 석가모니불, 다보불,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 약왕불, 정광보살, 문수사리보살 등 수많은 불보살상이 등장하고 있다. 420년 이전에 파지기 시작했으므로 보이며 자연 굴에 가공을 하여 석굴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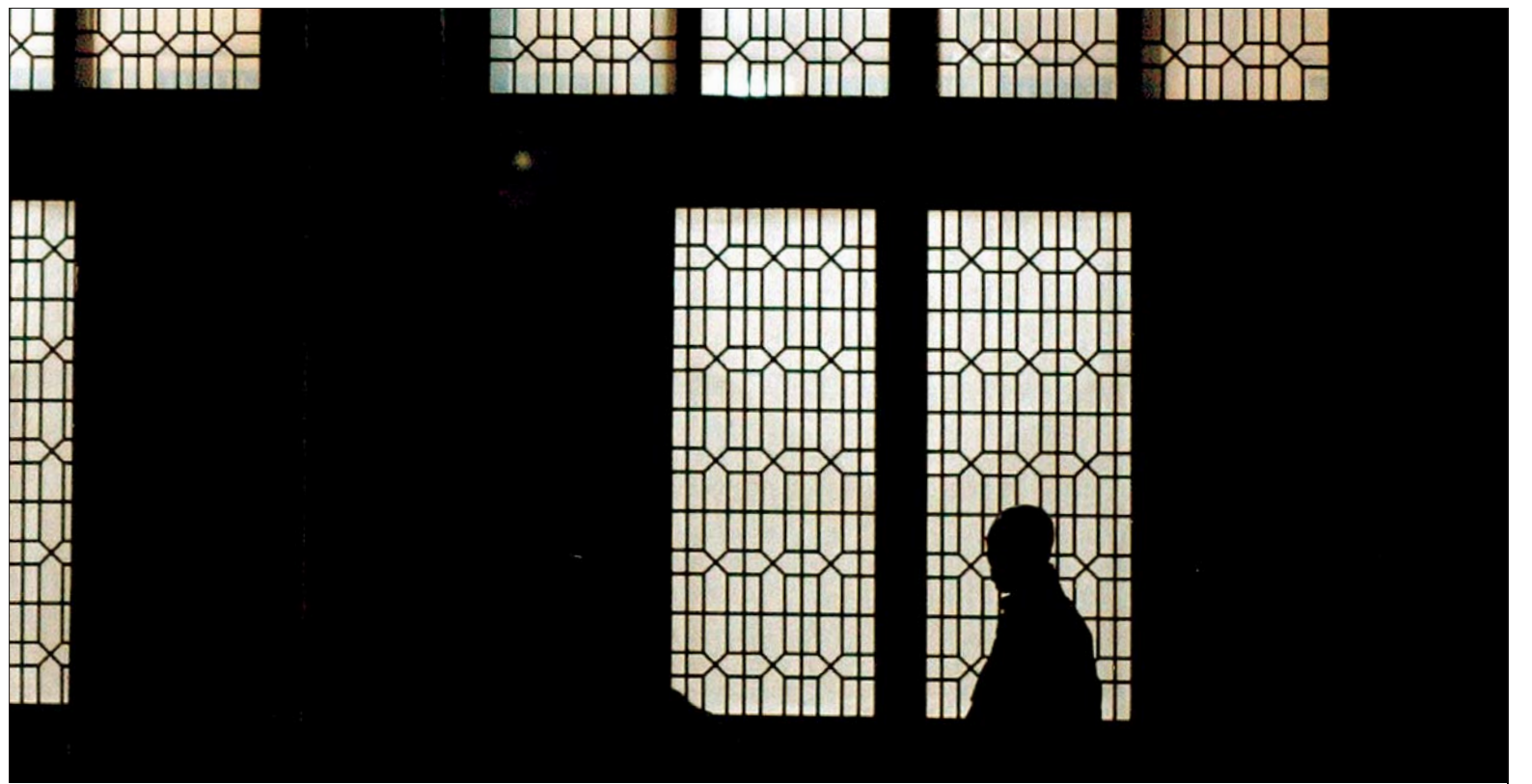
시대에는 당술산(唐述山)이라고 불렀다. 당나라 때에는 영암사(靈巖寺)로 불렸으며, 송나라 때에 이르러서 병령사란 용어가 사용됐다. '병령사'라는 뜻은 티벳어인 '선과병령(仙巴炳靈)' 즉, 천불만불(千佛萬佛)의 음역이다.

그만큼 이 석굴에는 많은 불상들과 벽화 등이 있었다. 이중 특히 병령사 169년 굴에는 서진 당시에 붓으로 쓰인 기록이 등장한다. 이 기록은 중국 석굴 중 기록상으로는 가장 빠른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기록에는 '서진건흥원년(420년)'이란 연호가 등장한다.

서진 왕조는 본래 선비족 계통의 국가로 5호 16국 시대 당시의 국가들이 그러하듯 혼란을 틈타 선비족의 일족인 갈복씨(乞伏氏) 일족에 의해 세워졌다. 서진 왕조는 47년간 둔황지역에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하서회랑 일대를 통치했는데 서진의 통치자들은 불교를 무척 숭상했다. 갈복씨들은 동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50 동화사의 밤



뜨겁던 태양이 도량의 모든 그림자를 끌고 서산으로 사라졌다. 마뚝해진 하루였을까. 남무한 생각들이 고개를 들어 질어오는 어둠을 기다린다. 추녀 끝에서 들려왔던 풍경 소리는 이제 불 꺼진 문살에서 들려온다. 가을 별래의 기척도, 서늘해진 바람 소리도 숲이 아닌 설법전 문살에서 번져온다. 그랬다.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들려왔다. 설법전의 불빛이 꺼지고 나면 그 소

리들은 어디에서 들려올까. 서산으로 사라졌던 태양이 끌고 갔던 그림자를 이끌고 다시 도량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추녀 밑으로 풍경의 그림자가 다가선다. 가을별래의 기척은 빛나는 이슬이 머금고, 가을바람은 푸른 안개 뒤에 있었다. 오늘밤에도 설법전엔 누군가 불을 켜 줄 것이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12도 성불이래비산수장엄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삽화는 아미타불에 대한 설명 중 한 부분이다. 그림을 살펴보면 두 명의 제자가 협시한 아미타삼존불과 그 좌우로 천왕과 천녀가 시립해 있다. 이 도상은 7번째의 목판 원판 후반부의 일부와 8번째 목판의 전반부의 일부까지 이어져 있다.

"사리불아, 아미타불이 성불하신지 이제 10겁이 지났나. 또 사리불아, 저 부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성문 제자를 두고 계시니, 다 아라한이다. 산수로도 헤아릴 수 없으며, 모든 보살중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사리불아, 저 부처님의 국토가 이와 같이 공덕장엄이 되어 있나. 또, 사리불아, 극락국토에서 증생으로 태어나는 이는 다 아비발치(불퇴, 무퇴, 불퇴전, 불퇴위라는 뜻,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량을 갖고 있지만, 증생을 위하여 자신의 성불을 뒤로 미루고 보살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 이를 이른다)이다. 그 중에는 일생보처(최후의 윤회 가운데 있는 자라는 뜻, 이생을 지나고 나면 다음 생에서는 반드시 성불하는 존재로서 간략히 보처라고도 하며, 보살의 최고위인 등각보살을 일컫는다)가 많이 있으며, 그 수가 심히 많아서 산수로서 헤아릴 수 없으며, 오직 무량, 무변의

이승지로 말할 뿐이나라." (舍利弗 阿彌陀佛 成佛以來於今十劫 又舍利弗 彼佛 有無量無邊聲聞弟子 皆阿羅漢 非是算數之所能知 諸菩薩眾 亦復如是 舍利弗 彼佛國土 成就如是功德莊嚴 又舍利弗 極樂國土 衆生所生 皆是阿鞞跋致 其中多有一生補處 其數 甚多 非是算數 所能知之 但可以 無量無邊 阿僧祇 說)

무량수경에서는 극락세계의 사람들의 수승함을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리 인간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용모가 단정한 임금이라 하더라도, 이를 전문성왕에 비한다면 그 천하고 볼품없음은 마치 저 빈궁한 거지를 임금 곁에 앉혀 놓은 것과 같고, 비록 전문성왕의 위엄이 늙음하고 빼어나서 천하에 제일이라 하지만, 이를 도리천 왕에 비교한다면 또한 천하고 추하기가 만 안 배나 차이가 있으며, 도리천 왕을 제 6천의 타화자재 천왕에 비한다면 또한 그 차이가 백천의 배도 넘나니, 그 타화자재천왕을 저 무량수불의 극락세계에 있는 보살이나 성문들에 견준다면, 그 빛나는 얼굴과 단정한 용모 차이는 백천만

배나 되어 이무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고 설하고 있다.

극락세계의 장엄함은 이제 그곳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 뿐만 아니라, 아미타부처님과 함께 있는 성문, 보살 등으로 확대해 설명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도 취하고 싶은 임금의 지위와 위엄도 극락세계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을 비유하면서 극락세계의 장엄함을 일러주고 있다. 우리 모두 이생의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떨쳐 버리고 다음 생에는 극락세계에 태어나 일생보처에 올라 이 고통 받는 사바세계를 극락정토로 바꾸는 대원력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화박물관 관장)



고관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12도 성불이래비산수장엄(成佛以來非是算數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cm.

Advertisement for SHC candles. Features a large pink lotus flower, various candle products, and text in Korean. Includes a list of candle types and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HC candles.

Advertisement for Giban products. Features a large black pillow, a diagram of the human body showing the lower back area, and text in Korean. Includes a list of product featur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iban.